

니체 철학에서 부정적 인간 유형에 대한 고찰*

- 배우와 군중 개념을 중심으로

양대중**

[주제분류] 유럽현대철학, 문화철학, 사회철학

[주제어] 니체, 배우, 군중

[요약문]

니체가 인류사의 문제로 진단하는 인간의 왜소화와 의미 진공의 원인으로 밝히려는 사건들의 주역은 도덕을 앞세워 인간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온 부정적인 인간유형들이다. 데카당스비판, 도덕비판, 종교비판, 문명비판의 커다란 축 안에서 니체가 주목하는 부정적인 인간의 유형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문명비판과 데카당스 비판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배우(Schauspieler)’와 ‘군중(Masse)’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착종돼 있는 니체 사상 중 현대성의 문제 하나를 명확하게 조명하고 니체가 마지막까지 대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유약한 시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면과 속임수들

철학자들이 필생의 작업으로 행하는 개념의 갈무리, 혹은 하나의 체계로서 사상의 설립은 크게 보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기존의 개념과 이념체계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문제를 적확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문제로 드러난 사태를 지양하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그 사태를 야기한 원인들을 적시하고 혁파하려는 노력이 부정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니체는 말년에 쓴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에서 스스로의 사상적 발전 안에 이 두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그 분수령으로써 자신의 완숙기의 저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거명하고 있다.¹⁾ 그 이후의 저작은 인류사의 문제로 드러난 유럽 최대의 병인 인간의 왜소화와 허무주의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태의 원인들을 드러내어 혁파하려는 노력에 경주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가 인간의 왜소화와 의미 진공의 원인으로 밝혀내는 사건들의 주역이 바로 도덕을 앞세워 인간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온 부정적인 인간유형들이다.²⁾ 데카당스비판, 도덕비판, 종교비판, 문명비판의 커다란 축 안에서 니체가 주목하는 부정적인 인간의 유형들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문명비판과 데카당스 비판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배우(Schauspieler)’와 ‘군중(Masse)’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착종돼 있는 니체 사상 중 현대성의 문제 하나를 명확하게 조명하고 니체가 마지막까지 대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본다.

1)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을 보라』,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438쪽 이하 참조.

2) 이러한 맥락에서 니체의 철학을 현대성의 치료의 일환으로 보고 그 특수한 적용으로 대중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루고 있는 글로는: 강영계, 「대중의 의미: 니체와 프로이트의 경우」, 성진기 외,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 철학과 현실사, 2000, 291~341쪽 참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니체는 19세기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인 군중의 등장애 비판적으로 주목한 사상가의 선두에서 있고,³⁾ 스스로를 자신의 시대를 개선하기 위한 시대 비평가로 이해하며 전반기의 저작들을 썼던 철학자이다. 중세적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화애의 적응을 통해 옛 고리에서 풀린 군중이 그 힘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대를 살았던 니체가 느끼는 19세기 후반은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는 마녀의 화덕처럼 원초적인 힘들이 뒤섞여 끓고 있는 불안한 “원자적 혼돈의 시대”⁴⁾이다. 갑작스레 여겨지는 사건들에는 설령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사(前史)가 있는 법이다. 느닷없이 닥치는 현재는 없는 것이다. 사회구성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소를 힘으로 가정하고 그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니체의 눈에 비친 19세기는 그 힘의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구성돼 있는 시기이며 대중문화 안에서 개인과 문화의 천박성과 통속성이 전면애 드러난 시기이다. 정신사적으로는 현대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19세기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니체 철학에서 이 잘못 조직된 힘의 위계질서의 부정적인 상징이 바로 인간왜소화를 대면하는 배우와 군중이라는 인간의 두 유형이다.

짧지 않은 인류의 역사에서 현대애 두드러지는 특성은 가면과 속임수와 역할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시대의 유약함의 증상이라고 진단한다. 인간의 의식과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의 수행과 언어의 사용, 종교와 정치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서 이러한 사실이 목도된다. 그리고 세상이 허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단어들에서도 드러난다.

3) Reschke, Renate, “Die Angst vor dem Chaos. Friedrich Nietzsches Plebiszit gegen die Masse”, in *Nietzsche Studien* Bd. 18, Berlin, New York 1989, 290쪽 이하 참조.

4)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7, 426쪽.

“세상은 속임수로 둘러싸여 있다. 그게 반드시 종교적 도그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보’, ‘일반교양’이나 ‘국민적’, ‘현대 국가’나 ‘문화 투쟁’과 같은 허튼 개념들도 그렇다. 모든 일반적인 말들은 이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장식의 몸에 달고 있다.”⁵⁾

그것이 학문의 영역이건 일상의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의 영역이건 우리 현대인은 모두 “야만적인 자의성과 표현의 과장”⁶⁾ 안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다. 처음 낯선 개념들을 대하며 느끼던 이질감은 이들의 부추김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욕망이 무더지는 만큼 일상의 다반사가 되어가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기에 이른다. 장소와 전통적 가치들에서 풀린 현대인은 도덕성과 습속과 문화의 여러 종류와 단계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다. 니체의 말대로 우리 시대는 실로 비교의 시대이다.⁷⁾ 니체의 희망은 이 비교를 통해서 보다 강하고 고상한 윤리와 문화의 형식들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역사의 실제적인 진행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천박한 형식들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

철학의 중요한 존재기반이자 전통가치 중의 하나인 명상적 삶보다는 활발하고 분주한 행동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니체는 문명의 행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예단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건강하고 고상한 문명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시작된 가볍고 피상적인 행보를 통해 유례를 보기 어려운 새로운 야만으로 가는 현대적 격동의 길이다.

“우리의 문명은 안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야만으로 끝날

5) 같은 책, 472쪽.

6) 같은 곳.

7)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1, 46쪽 이하 참조.

것이다. 어떠한 시대에도 활동적인 사람, 즉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지금처럼 많이 인정받지는 못했다.”⁸⁾

성찰하는 삶(vita contemplativa)과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의 조화는 오랫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이상 중의 하나였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독서의 무의미함을 갈파하는 철학자들의 목소리도 동일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 동양의 지행합일이나 서양의 자기배려가 의미하는 것 역시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만큼 같이 확장돼 나가야 하는 실천의 영역에 대한 강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니체가 진단하는 현대는 이 오랜 인문학의 이상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시대이다. 그래서 그는 인용문에 이어지는 글에서 맹목적인 의지의 돌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상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인류사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수적인 성격 수정작업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2. 배우의 출현

현대가 인정하는 가장 활동적인 인간은 그럼 누구인가? 체험과 확신에 기반을 둔 신앙이나 형이상학, 역사의 의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꿀벌과 말벌처럼 한데 뒤엉켜 날면서”,¹⁰⁾ 상황에 따른 배역을 연기할 뿐인 사람이 가장 활동적인 현대의 주역이다. 그러나 분주한 그를 통해 고상하고 건강한 문명이 가능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번잡한 일에 골몰한 현대인들이 걷는 그 길의 중간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야만을 통과한다. 모

8) 같은 책, 279쪽.

9) 같은 곳 참조.

10) 같은 곳.

든 인간이 스스로의 성격을 상실하고 오직 배우로만 존재하게 된 현대를 진단하는 니체의 화두는 의외로 예술이다. 기준과 정향점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다 실험해 보기에 이른 현대가 가지는 가능성과 위험을 살피는 『즐거운 학문』의 한 절은 “유럽은 어느 정도까지 점점 더 ‘예술적’으로 될 것인가”¹¹⁾ 라는 냉소적인 소제목을 달고 있다. 희극배우와 비극배우에게 나막신과 반장화를 신겨주는 것이 사실은 “교육의 부족과 곤궁과 자유분방함”¹²⁾이라고 일갈한 디드로처럼 니체 역시 현대인들이 배우가 되는 이유를 강요된 선택으로 보고 있다. 극장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편으로 강요되는 것이라는 디드로의 엄정한 명제를 니체는 현대인들의 직업선택과 이로 인한 성격의 상실로 확대시킨다.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때 그가 속한 신분과 조합과 기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중세와 달리, 지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시대에는 실로 우연과 자의성이 직업 선택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주어지는 직업이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인은 이 강요된 역할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다. 그래서 현대는 “역할이 실제 성격이 되고 예술이 자연이 되고 있다.”¹³⁾ 지속과 영원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피라미드를 구축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중세와 달리, 이제 anything goes!라는 미국적 구호가 지배하는 민주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인들에게서 최초로 나타났고, 니체시대에 미국인들의 믿음이었으며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 현대적 믿음의 핵심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단한 실험을 당연시하는 일이다.

11)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안성찬·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344쪽.

12) 드니 디드로, 『배우에 관한 역설』, 주미사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87쪽.

13)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45쪽.

“이런 시대의 개인은 자신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역할에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실험하고, 즉흥적으로 실험하고, 새로이 실험하고, 기꺼이 실험한다.”¹⁴⁾

역할에 대한 이러한 뻔뻔한 믿음의 귀결은 이 믿음의 소유자가 정말로 배우가 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부단한 즉흥적인 실험은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그 가능성의 확대만큼 인간은 더 배우가 돼 간다.

배우란 누구인가? 그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자이다.¹⁵⁾ 효과와 영향력의 증대를 최우선적 전략으로 내세우는 바그너 안에서 니체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을 진실하게 포장하는, 배우 속에 있는 사기꾼적인 요소이다.¹⁶⁾ 니체는 재판(再版)에서 추가된 『즐거운 학문』의 한 절에서 배우의 문제가 자신을 오랫동안 번거롭게 만들어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배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양심에 거리까지 않는 허위, 권력으로서의 위장의 기쁨을 분출하는 것, 소위 ‘성격’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때로는 소멸시키는 것, 배역과 가면과 가상안으로 들어가려는 내면의 요구를 지니고 있는 것, 모든 종류의 적응 능력이 넘쳐나지만 가장 가깝고 밀접한 일에도 유용한 봉사를 할 줄 모르는 것.”¹⁷⁾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역할과 성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러한 탁월한 적응 능력은 니체에 의하면 하층 민중 출신의 집안에서 용이하게 길러진다.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반복되는 압력과 강제와 뿌리 깊

14) 같은 책, 345쪽.

15) 프리드리히 니체, 『바그너의 경우』,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42쪽 참조.

16) 튀디저 자프란스키, 『니체. 그의 생애와 사상의 전기』, 오윤희 옮김, 2003 서울, 150쪽 참조.

17)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59쪽.

은 종속성이 이러한 출신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황들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자신을 맞추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대가가 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¹⁸⁾ 그리고 문화의 고양과 상승, 도덕과 덕성의 함양, 장기적 교육 등 인간을 단련하고 강하게 만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동을 승화시켜 본능이 되도록 만드는 데에 니체적 진화론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¹⁹⁾ 이러한 배우적 충동 역시 세대를 따라 내려가 체화되고 육화되어 다른 모든 본능을 지배하는 주도적 본능이 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배우가, “예술가”가 생산되기에 이른다. 니체는 동일한 배우의 본능이 육성해 낸 유사한 인간의 유형으로 외교관과 유대민족, 문필가와 여성들을 들고 있다. 이들의 공동의 특성은 바로 탁월한 적응능력이다.²⁰⁾

배우적 본능이 보편적인 인간유형이 되어버린 현대, 배우가 주역이 된 역사의 마지막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광기에 찬 시대이다. 그리고 이 유동적이며 말랑말랑한 무정형의 성격을 가진 인간들의 시대에 그 출현과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유형의 인간이 있다. 그들은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대한 건설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제 건설하는 능력이 마비되고, 먼 곳을 내다보고 건설하는 용기가 꺾이게 되며, 조직의 천재가 부족하게 된다. 도대체 이제 누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될 일에 과감하게 착수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인간이 계산하고, 약속하고, 미래를 계획 속에 선취하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데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믿음이, 다시 말해 인간은 거대한 건축을 위한 하나의 초석일 경우에만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²¹⁾

18) 같은 책, 360쪽 참조.

19) 무의식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정동과 충동의 승화를 통한 덕성과 문화의 고양에 대한 니체의 고찰에 대해서는: 양대중, 「정동(情動)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고찰 - 힘에의 의지를 중심으로」, 『니체연구』 제22집, 한국니체학회, 2012 참조.

20)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60~361쪽 참조.

21) 같은 책, 346쪽.

배우(Schauspieler)는 그 성격과 가치관에 있어 결단코 확고하지 않으며, 그래서 배우가 주역이자 배우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격이 돼 버린 시대는 가치와 의미의 설립을 위해 천년을 계획하는 의지의 인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때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성격과 가면의 차이가 철회되기에 이르고 성격마저도 가면이 된다. “이른바 성격이라는 가면을 쓴 인간들, 그들은 그들의 가면들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²²⁾ 통상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견디지 못하며, 자신의 공허한 실상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눈을 돌리기 위해 사회적 통념이나 정치적 이념 혹은 종교적 이상으로 도망치곤 해 왔다. 고양된 자기 자신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 흔히 의무를 들먹이고 타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니체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²³⁾ 그런데 배우가 주역이 되고 주목받는 시대에는 이런 자기방기의 결과가 더 이상 부끄러움과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출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된 것이고, 이 일에서의 탁월함이 위대함으로 보이게까지 된 것이다. 가상의 보편적 실재화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더 이상 불안과 부끄러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일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성격과 가치와 믿음과 전통이 더 이상 정향점과 기준이 되지 못하는 폐허가 된 시대에 절망하지 않은 자에게 일차적으로 가능한 일은 그 스스로도 이런저런 역할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가면을 써 보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인은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동일한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현대인은 실로 자신들의 욕구가 향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우연히 할당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갈 뿐이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술과 학문에서 비교적 창조적인 정신들, 다시 말해 인류적 차원에서 실험하는 자들 역시 역

22)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최성환 옮김, 책세상 2004, 393쪽.

23) 같은 책, 392쪽 참조.

할과 가면의 가능성을 파내는 일을 주체의 형식이나 표현의 양식, 새로운 가치를 주조하는 일 등에서 의식적으로 가속화 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이러한 연극은 인간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든다. 모두가 스스로 유일하게 주목받는 연극을 행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판단과 기호와 지인과 고독 등을 동원해 타인의 관심을 자극하기를 원하는 것이다.²⁴⁾

문화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성공의 조건이 바로 연극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니체는 문화에서의 배우의 등장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포를 주기도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²⁵⁾ 빅토르 위고(Victor Hugo)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를 예로 들면서 니체는 문학과 음악 영역에서 이들의 대중적 성공이 바로 몰락하는 문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빅토르 위고와 리하르트 바그너 - 이 둘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요: 즉 몰락하는 문화 안에 있다는 것을, 대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진정함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고 해로우며 냉대 받게 된다는 것을. 오로지 배우만이 여전히 대단한 열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로써 배우에게는 황금기가 도래한 것이지요.”²⁶⁾

배우의 시대가 곧 군중의 시대라는 사실은 형이상학과 신의 죽음 이후에 가상이 관치게 된 허무주의 시대의 특성이 된다. 진리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도들과 모색을 부추기며, 한 동안 비어 있는 진리의 권좌를 놓고 수 많은 배우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24)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364~365 참조.

25) 프리드리히 니체, 『바그너의 경우』, 51쪽 참조.

26) 같은 곳.

3. 군중(Masse)의 시대

군중, 혹은 대중은 니체에게 사회를 구성하는 낮은 점토층일 뿐이며, 이들의 욕구를 중시하는 역사는 무가치한 역사일 뿐이다. 그에게 대중은 오로지 세 가지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첫째로는 나쁜 종이 위에 낡은 건판으로 제작된 위인의 희미한 복사로서, 그 다음에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저항으로서, 마지막으로는 위대한 인물의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그 외의 측면에서 대중은 악마와 통계학이 데려가 버려라!”²⁷⁾

물론 니체 역시 수량적인 정보를 다루는 방법인 통계학이 그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학이 역사에서 증명된 법칙은 그의 눈에는 “대중이 얼마나 비천하고 구역질 날 정도로 획일적인지”²⁸⁾에 관한 것일 뿐이다. 대중적 기호, 그들의 서로 흉내 내기, 어리석음, 사랑과 굶주림의 효과가 법칙이라면 그것은 무가치한 법칙일 뿐이며, 이것들이 지배하는 역사 역시 무가치한 역사일 뿐이라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다. 그래서 니체에게 대중적 기호에 편승한 역사적 권력을 위대하다고 부르는 모든 역사적 서술은 “의도적으로 질과 양을 혼동하는 것”²⁹⁾일 뿐이다. 위대함은 미래를 배태한 것이며, 인간에게 문화적, 형이상학적 정향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성공과 지속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비천한 역사적 감각의 과잉을 비판하는 니체의 시선은 천박한 양적 역사의 조장과 장려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악한 세력들이 청년

27)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 372쪽.

28) 같은 곳.

29) 같은 책, 373쪽.

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으로 “젊은이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 즉, 믿음으로 위대한 사상을 자신 속에 심고 더 위대한 사상이 자신에게서 자라나게 하는 그들의 힘”³⁰⁾을 특칭하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관점과 지평의 이동은 체제와 기존 가치관예의 순응을 강요하며 가장 이기적인 좁은 영역으로만 청년을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청년과 인류의 미래를 착취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위축된 인간은 이제 획일적이며 통계의 대상일 뿐인 순응형 인간, 즉 대중이 된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은 편의와 이익에 기반을 둔 소시민적 안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³¹⁾

“무관심한 사람(Uninteressiertem)’이 대중의 칭찬을 받게 된 지금이야말로 (.....) 우리는 본래 대중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일반인이 철저하고도 깊이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 그 때 명백해지는 것은 더욱 섬세하고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좀 더 높은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력 있어 하는 것은 대부분 보통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³²⁾

실제의 정확과 그 속에서의 자신의 실존적 위치에 대한 정신의 정확한 산정능력과 진지함을 상실하고 일상의 평범함과 소시민적 안락만을 원하는 대중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진보의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보편적 이성의 단련을 통해 정신을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다.³³⁾ 그러나 유

30) 같은 책, 376쪽.

31) Weiß, E., “Nietzsche und seine pädagogikhistorische Problematik. Theoretische und rezeptionsgeschichtliche Bemerkungen zu einer provokanten Bildungsreflexion” in: Niemeyer/Drerup/Oelker/v. Porell(Hrsg.), *Nietzsche in der Pädagogik? Beiträge zur Rezeption und Interpretation*, Weinheim, 1998, 244쪽 참조.

32)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202쪽.

33)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144, 213쪽 참조.

니크한 개인들이 눈을 감고 모두가 역할을 연출할 뿐인 대중이 된 시대에 보편적 이성을 세련되게 연마하고 개념들의 소소한 차이와 뉘앙스들을 중시하는 일은 요원하고 드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의 의지박약과 허무주의를 시대의 병으로 진단하는 니체가 던지는 선명한 메시지 중의 하나는 우리 모두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unicum)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범속성에서 벗어나 주권적 개인으로 비상하라는 니체의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 웅변적으로 들리는 문장은 사실은 별다른 특이한 사실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인간 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엄밀히 말해 모두 다 이 명제에 귀속된다. 어느 돌 어느 풀 하나 독특하지 않은 것이 없이 유일무이한 존재자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단 한 번, 유일무이한 존재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또 어떤 이상한 우연도 두 번씩이나 그토록 기이하게 다채로운 갖가지들 뒤흔들어 섞어 그 같은 하나의 존재로 만들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³⁴⁾

그러나 인간은 통상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감추고 풍속과 의견 뒤에 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니체의 진단이다. 계몽을 “스스로 자초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정의한 칸트적 진단과 맥을 같이 하여,³⁵⁾ 니체 역시 비겁한 게으름에서 이 도주와 자발적인 눈 감음의 이유를 찾고 있다. 게으름과 비겁은 자신의 지성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두려워 스스로 미성숙을 자초하는 일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니체에 의하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부정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대한 사상가가 인간을 경멸

34)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 391쪽.

35)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Berlinische Monatschrift* 4, 1784, S. 481-494쪽 참조.

하는 이유는 바로 풍속과 의견 뒤에 숨는 일의 원인이 되는 편안함, 타성, 나태함이다.

“나태함 때문에 인간은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처럼, 관심도 흥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류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³⁶⁾

실존의 우연성을 부인하고 현존재의 주인이 되도록, 대중에게서 멀어지도록 청년을 권면하는 니체의 눈에 스스로의 독창성을 무시하고 공적 의견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황폐하고 역겨운 피조물”이자 “가짜 인간”일 뿐이다.³⁷⁾ 그래서 니체 철학에서 주권적 개인의 대변자 중의 하나인 예술가가 인간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유일한 기적이며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예술가는) 인간이 유일무이성의 엄격한 결과로서 아름답고 주목받을만하며, 모든 자연의 작품처럼 새롭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존재로서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³⁸⁾

그러나 게으름과 비겁에서 오는 타성 이외에도 더 큰 차원에서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시대의 경향성 역시 존재한다. 니체가 유럽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부른 이 경향성은 인간의 유사화와 왜소화를 야기한 사건으로 어찌면 거의 필연적인 시대의 조류이기도 하다. 『선악의 저편』 242절과 1888년의 유고에서³⁹⁾ 니체가 진단하는 전 인류차원의 생리적인 변화로서의 민주화 운동과 허무주의의 도래가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36)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 391쪽.

37) 같은 곳.

38) 같은 곳.

39)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5, 518쪽 참조.

유럽인이 생성되어가는 유럽의 민주화 과정은 도토리 만들기를 그 구호로 삼는 인간의 왜소화와 천박화 과정, 획일화 과정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최대의 적응술과 적응력”⁴⁰⁾이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를 지배하는 배우의 특성이고, 평준화되고 평범하게 되어버린, “유용하고 근면하며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재주 있는 무리 동물적 인간”⁴¹⁾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연극이 필연성이 된 현대에 인간은 자신을 포함하는 가짜 인간의 모습에 지쳐있다.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인간은 더 이상 없으며 다수와 노에도덕의 승리는 거의 항구적으로 보인다. 범상한 것들이 가치의 권좌에서 호령하는 구역질나는 모습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현대의 허무주의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과 전망과 진정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내리는 벌(罰)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을 혐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인간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것은 공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인간’이라는 별레가 전경에서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길들여진 인간’, 구제할 수 없이 평범하고 달갑지 않은 인간이 벌써 자신을 목표와 정점으로, 역사의 의미로, ‘보다 높은 인간’으로 느낄 줄 안다는 사실이다.”⁴²⁾

“오늘날 ‘민중’이 아닌 자가 누가 있는가?”⁴³⁾라고 외치는 니체의 한탄은 생명력 넘치는 자기공정과 위대함을 위한 도약의 의지를 상실한 무리동물들

40)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지편』, 239쪽.

41) 같은 책, 240쪽.

42)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375쪽.

43)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35쪽.

에 둘러싸여서도 어쩔 수 없이 삶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의 안타까운 독백처럼 울린다. 니체 철학에서 인간은 초극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아직 불완전한 어떤 것, 완성되지 않은 동물이 그의 사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위상이다. 이 동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대중이라는 것은 대중으로서의 인간의 불완전성, 동물성에 그 근거를 둔다. “선량한 대중으로서 인간들은 동물이 된다.”⁴⁴⁾ 동물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 인간을 참으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사실은 철학이 확보한 오랜 적법한 공유지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정신에 대한 회의와 방임이야말로 이 인간적 본질을 파악한 후대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다시 동물로 추락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는 현대 사상사의 분기점이 돼 버린 『즐거운 학문』의 유명한 절에서 광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광장의 대중들에게 단지 조소의 대상이자 오락거리에 불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정신의 자기방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가치와 관련한 현대철학의 담론에서 방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⁴⁵⁾ 자신의 현존재의 진정한 본질인 정신의 활용이라는 면에 있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 허무주의의 도래를 공포하는 광인은 그나마 정향점과 기준이 없어진 현대의 현실을 직시하는 자이다. 반면에 그를 조롱하는 광장의 대중들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들에게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지배했던 실제성도, 그 실제성의 상실과 함께 당면하게 되는 새로운 현실과 의미의 공허도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 실제성과 실제성의 상실이 가져오는 가치의 공동화(空洞化)가 그들의 삶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목도해야 하는 실존적 사건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⁴⁶⁾ 그들은 단지 소비의 욕망 앞에서 달려가는 자들이며, 자신의 실존의 자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며, 숙고하기를 두려워하는 폭풍과도

44)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82년 7월~1883/84년 겨울)』,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5, 806쪽.

45)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199~201쪽 참조.

46) Picht, Georg, *Nietzsche*, Klett-Cotta, Stuttgart 1988, 326쪽 이하 참조.

같이 그저 삶에 떠밀려 흘러가는 자들일 뿐이다. 자신의 삶에 방향과 구속력을 줄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채, 현대인은 이제 무근거의 심연 위에서 전체로서 통제에서 풀려 불안하게 부유할 뿐이다. 가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지진과 붕괴, 몰락과 파괴, 전율과 혼란은 연극과 역할극에 몰입해야하는 그들의 시선을 더 강고하게 만들 뿐이다. 이 강고함은 위험을 동반한 인간의 가능성과 위대성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몸사림과 소심함의 반증이며 번갯불의 내려침과 광기의 접종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이기도 할 것이다.⁴⁷⁾ 무엇보다 대중에게는 아직 “종래의 가치와 소망의 전 영역을 체험”하고 나서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시험할 정도로 힘을 집적한 자들에게서 목도되는 “위대한 진지함”과 “진정한 의문부호”가 가능하지 않다.⁴⁸⁾

실제와 가치에 대해 자신만의 입장을 표명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는 일이 가능해지기까지, 다시 말해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는 인간의 미래적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인간에게 다시 가능해지기까지 진실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목도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증대하는 일이다. 니체 철학에서 진리의 가상성과 세계의 생성적 성격에 대한 기표로 기능하는 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힘의 축적이 실제로 근대인에게 발생했다는 증거로 읽힐 수 있다.⁴⁹⁾ 그 과정에는 정신적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의거해 성급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옛 것에 매달리며 아직 피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앞에서 주저하고 회의하는 일도 포함된다. 종교개혁을 개신교의 범속함과 쾌활함 및 친숙함과 피상적인 특성이 “보다 무겁고, 깊고, 관조적인 인간들, 다시 말해 실존의 가치와 자

47)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10, 16~20쪽 참조.

48)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92~393쪽 참조.

49) 김주휘,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니체 연구』 제20집, 한국니체학회, 2011, 101~106쪽 참조.

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을 품어온 인간들의 지배에 대항하여 벌이는 투쟁”⁵⁰⁾으로 해석하는 니체의 시선에는, 하나의 이념과 가치가 담고 있는 가능성을 길어내기 위해 세대를 격해서 자신의 실존의 비밀과 의심을 견뎌내 온 정신적 인간들에 비하여, 감각적으로 순간을 살 뿐인 프로테스탄티즘의 배우적 피상성과 천박함에 대한 경멸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중은 그에게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자들”이거나, “근대적 이념”이라는 정신병원”에 어울리는 “양, 노새, 거위”에 불과하다.⁵¹⁾

이 시대에 연극이 필연적으로 되는 이유 중의 다른 하나는 진정한 위선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대 문화의 유약함이다. 사회나 국가 등 강력한 어떤 조직이 요구하는 믿음을 신봉한다는 것을 생존을 위해 내보여야 할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강렬한 믿음의 시대는 수많은 다양한 확신들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은 비타협의 시대였다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다. 반면에 현대인은 너무도 쉽게 하나의 확신에서 다른 확신으로, 하나의 신앙에서 다른 신앙으로의 이월해 간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의 박약이 야기한 타협이자 자기에 대한 유약한 관용이며, 굵은 선의 인간이 사멸한 증거이며, 신앙과 확신이 인간의 삶에서 힘을 잃고 장식물로 전락한 결과이다. 그래서 지적 양심을 견지하는 듯 보이는 몇 안 되는 위선자들마저도 니체의 눈에는 단지 위선을 흉내 낼 뿐인 연기자들에 불과하다. “오늘날 거의 열 명 중 한 명이 그러하듯, 그들은 배우였다.”⁵²⁾

대중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근거보다는 열광적인 몸짓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공평무사한 정의로운 시선을 가진 탐구자보다는 니체가 “병든 정신들”이라 부르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각만

50)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34쪽.

51) 같은 곳 참조.

52) 프리드리히 니체, 『우상의 황혼』,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156쪽.

을 사용하는 광신자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의 간질병”이 대중에게 효력을 발휘하곤 한다.⁵³⁾ 같은 맥락에서 효과를 중시하는 극장은 대중이 모이기를 좋아하는 곳이고, 연극은 “취향 문제에 있어서 대중 숭배의 한 형식”이자 “대중 붐기”로 표현된다.⁵⁴⁾ 그러나 이렇게 그가 불리일으키는 대단한 열광을 타고 도래한 배우의 황금기, 즉 대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인식에 있어 실제적인 극복과 도약의 기초가 되는 진정함이 해롭고 불필요한 것으로 냉대를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⁵⁵⁾

열광적인 몸짓에 대한 선호는 극장을 넘어서 사회와 정치의 영역으로도 확장된다. 따라서 현대적 배우의 대표적 한 유형인 정치가에게서 허무주의의 전형적 특성인 저급한 단순화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대중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선 그는 자기 자신을 그로테스크하고 명백한 모습으로 전환시키고, 그의 전 인격과 일을 이 거칠고 단순화된 모습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⁵⁶⁾

물론 상기한 인용문은 정치가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단상의 소제목은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이라고 되어 있다. 대중을 움직이고자 하는 자는 정치가를 비롯해서 선동가, 종교인, 사상가 그리고 니체의 광인 등 넓은 스펙트럼의 인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지를 지금 뭉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될 수밖에 없는 특성은 타인을 움직이기에 앞서 약속하는 자 스스로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이며 필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⁵⁷⁾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복잡다단한

53) 프리드리히 니체, 『안티크리스트』,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299쪽 참조.

54) 프리드리히 니체, 『바그너의 경우』, 57쪽 참조.

55) 같은 책, 51쪽 참조.

56)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241쪽.

생기로 이루어진 세계를 단순화해서 지배해 온 근대인은 자신에게 유용한 이 자연지배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가 먼저 예측가능하고 계산가능하며 정량화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세계의 물리적 지배라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근대인은 자신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만을 특화시켜 발달시켰고, 종래에는 나사처럼 잘 기능하는 표준형 인간으로 위촉되기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어떤 강력한 인상의 욕구가 지배하는 세계극장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은 그 욕구에 부응하는 연기가가 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니체에 의해 현대적 배우의 극명한 예로 쓰이는 정치가가 인기에 영합하는 방법은 대중과 같아지는 일이다.

“대중의 위대한 사람-대중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게 주어져 있다. (.....) 강력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하나의 의지력이 거기에 있다는 인상을 대중이 받아야만 한다. 적어도 그러한 의지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야 한다. 강한 의지에는 누구나 다 감탄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만약 자신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이기주의에 더 이상 아무런 한계가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강한 의지가 자신의 열망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대신 대중에게 아주 즐거운 그 무엇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 보이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감탄하고 그들 자신의 행복을 원한다. 그밖에 그는 대중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중은 그의 앞에서 그만큼 수치심을 덜 느끼게 되고 그는 그만큼 더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 따라서 그는 난폭하고 질투하고 착취를 즐겨하며 음모를 좋아하고 아침을 잘하고 비굴하고 교만하며 사정에 따라서는 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⁵⁸⁾

생활세계 전반에 걸쳐 연극과 대중이 중요하게 된 현대는 사물과 사태 안에 들어 있는 더 높은 의미체계가 주는 위압과 공포를 상실한 시대이고 모

57)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396쪽 이하 참조.

58)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367쪽 이하.

든 것이 피상적인 가면처럼만 기능하게 된 시대이다. 가면으로 기능하는 현대의 눈에는 예전에는 상징이자 의미체계였던 것들마저도 역사 속에서 명멸해 간 또 다른 가면으로 보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과거와 미래 전체에 걸쳐 의미심장하게 된다는 니체의 영원회귀론의 위험한 관점은⁵⁹⁾ 부정적인 현대의 모습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4. 나가는 길: 천 개의 가면을 넘어서

니체는 영겁회귀를 이야기하는 한 구절에서 인생 전체를 연극(Schauspiel)이라고 부른 바 있다.⁶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만드는 생명의 연극적인 속성을 알면서도 이 연극의 심연을 바라보고 그 필연적인 필요성을 깨달은 자로서 니체는 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존의 연극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 역설적인 소망은 그래서 그 스스로에게도 “악순환의 신(circulus vitiosus deus)”⁶¹⁾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까지를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약함의 염세주의를 넘어 생명 전체를 강하게 붙들어 끌어올리는 위대한 긍정인 것이다. 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의 입장을 전부 거쳐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천 개의 가면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존재의 모순성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통일성을 인정한 자는 그래서 비둘기와 뱀과 돼지, 이 모두이고 싶은 것이다.⁶²⁾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니체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통해 인정했

59)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240쪽 참조.

60)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93쪽 참조.

61) 같은 곳.

던 그리스적 본질의 위대한 개념인 모순적인 것들을 통한 조화와 통일성이라는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니체에 따르면 “생성 속의 법칙과 필연성 속의 유희에 관한 학설”을 통해 유구한 생명의 변화와 흐름을 긍정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심미적 세계관은 생명의 연극이 함장한 위대성에 대한 긍정에 다름 아니다.⁶³⁾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위대한 것과 비천한 것, 탁월한 것과 범상한 것 등 서로 대립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경쟁하며 투쟁을 통해 장엄한 흐름을 형성하고 변전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긍정이 바로 모순 속의 합법칙성, 영원한 로고스가 입고 있는 살아 있는 옷으로서의 코스모스를 관조하는 헤라클레이토스적 세계의 장엄함이다.

생명의 장엄함이 펼쳐지는 무대로서 세계의 역사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연극무대가 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통해서 길러진 지적 성실성이 기독교를 의문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도덕의 몰락은 니체에 의하면 장시간에 걸쳐서 그 위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것은 이후의 두 세기를 위해 아껴 남겨진 100막으로 구성된 대단히 무섭고 의심스런 연극이며, 동시에 미래의 인간을 배대한 연극이기에 “가장 희망에 차 있기도 한 연극”⁶⁴⁾이기도 하다.

연극과 가상의 개념에 니체가 부여하는 이러한 양가적 가치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연기와 연극적인 것은 다 부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약함의 허무주의와 나란히 강함의 허무주의가 있다면, 성격의 부재와 환경의 압력과 강제로부터 기인한 약함의 배우와 나란히 인식욕과 생명력의 풍부함에서 모든 것을 시험하는 강함의 배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⁵⁾ 인생을 견딜 만 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영혼의 피부

62)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41쪽 참조.

63) F. Nietzsche, “Die Philosophie im tragischen Zeitalter der Griechen”, KSA 1, 835쪽 참조.

64)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539쪽.

65) 니체가 배우가 생산되는 과정을 개괄한 『즐거운 학문』의 배우의 문제를 다룬 절의 마지막 괄호 안에서 이 배우적 유형의 끝에 천재가 자리한다고 명기한 사실을 주목하자. 프리드리히

인 허영에 대한 니체의 잠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중적인 답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허영은 상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일들을 감행하게 하는 원인이며,⁶⁶⁾ 그 속에 숨어 있는 비천한 자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힘을 합쳐 덕을 함양(涵養)해 온 필수 불가결한 충동이다.⁶⁷⁾ 연기와 가상, 연극적인 것들에 대한 니체의 견해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이미 아폴론적 충동을 디오니소스적 충동과 보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그 긍정적인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연기에는 가상의 배일을 치는 능력, 자신이 만든 가상을 스스로 먼저 믿어서 타인에게 실재로 믿게 만드는 능력, 가상의 수단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재기와 끈질김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능력들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연기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진리의 가상성과 위장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니체가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연기와 연극적인 것의 폐기가 아니다. 인식의 여정에서 여전히 극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나은 연기와 영리함이다. 그래서 관객으로 남기에는 아직 정열적인 젊은이들에게 니체가 원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제3의 눈을 갖는 일이다.

“비극과 희극이 가장 잘 연출되는 곳에서 비극과 희극을 구하라! 더 흥미진진하고 더 진지하게 그것들이 행해지는 곳을 구하라!”⁶⁸⁾

그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꿈만 꾸는 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지 말자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전반적인 연극적 상황을 인정하고 보다 재미있고 멋진 꿈을 꾸지는 것이 니체의 시대진단과 처방에 들어있

니체, 『즐거운 학문』, 360쪽 참조.

66)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94쪽 참조.

67)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8, 398쪽 참조.

68) 프리드리히 니체, 『아침놀』,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8, 380쪽.

는 강한 목소리이다.⁶⁹⁾ 이러한 맥락에서 연기와 연극에 있어서 가상과 존재의 대립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윤리적인 것이 철저히 배제된 그리스적 이상으로 니체가 철저한 배우로서의 오디세우스를 꼽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스인은 오디세우스의 어떤 점에 경탄했는가?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 능력, 교활하면서도 무섭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면 가장 고귀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능력, 영웅적인 집요함, 모든 수단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기를 갖는 것.”⁷⁰⁾

시대비판가이자 인간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로서 니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과 진리의 가상성이나 위장적 성격, 연기의 보편성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의 끝까지 연출되지 못한 가면과 충분히 원활하게 연출되지 못한 연기, 그래서 다시 그 성격과 연출을 담당했던 인간을 진화의 아래계단으로 끌어내리는 정신의 미숙함과 의지박약이야말로 그가 마지막까지 대결하고자 한 문제일 것이다.

69)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240쪽 참조.

70) 프리드리히 니체, 『아침놀』, 284쪽.

참고문헌

-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Berlinische Monatsschrift* 4, 1784, S. 481-494쪽.
- Nietzsche, Friedrich, “Die Philosophie im tragischen Zeitalter der Griechen”, KSA 1.
- Picht, Georg, *Nietzsche*, Klett-Cotta, Stuttgart 1988.
- Reschke, Renate, “Die Angst vor dem Chaos. Friedrich Nietzsches Plebiszit gegen die Masse”, in *Nietzsche Studien* Bd. 18, Berlin, New York 1989
- Wei ß, E., “Nietzsche und seine pädagogikhistorische Problematik. Theoretische und rezeptionsgeschichtliche Bemerkungen zu einer provokanten Bildungsreflexion” in: Niemeyer/Drerup/Oelker/v. Porell(Hrsg.), *Nietzsche in der Pädagogik? Beiträge zur Rezeption und Interpretation*, Weinheim, 1998.
- 강영계, 「대중의 의미: 니체와 프로이트의 경우」, 성진기 외,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 철학과 현실사, 2000, 291~341쪽.
- 김주휘,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니체 연구』 제20집, 한국니체학회, 2011.
- 양대중, 「정동(情動)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고찰 - 힘에의 의지를 중심으로」, 『니체 연구』 제22집, 한국니체학회, 2012.
- 니체, 프리드리히, 『반시대적 고찰』,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7.
- _____,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1.
- _____,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8.
- _____, 『아침놀』,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8.
- _____, 『즐거운 학문』, 안성찬 · 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선악의 저편』,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바그너의 경우』,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이 사람을 보라』,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우상의 황혼』,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안티크리스트』,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최성환 옮김, 책세상 2004.
- _____, 『유고(1882년 7월~1883/84년 겨울)』,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5
- 디드로, 드니, 『배우에 관한 역설』, 주미사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 자프란스키, 루디거, 『니체. 그의 생애와 사상의 전기』, 오윤희 옮김, 2003.

【 Zusammenfassung 】

Über die negativen menschlichen Typen in
der Philosophie von F. Nietzsche
- fokussiert auf die Konzepte von
Schauspieler und Masse

Yang, Dea Jong
(Konkuk University)

Die Hauptakteur der modernen Ereignissen als der Ursachen für die Menschenverkleinerung und das Sinn-Vakuum, was von Nietzsche als das Problem der Menschheitsgeschichte diagnostiziert, sind die negativen menschlichen Typen, die die Möglichkeit des Menschen auf Grund der Moral verringert haben. Innerhalb der großen Achse der Dekadenzkritik, Moralkritik, Religionskritik und Zivilisationskritik variieren Nietzsches negativen menschlichen Typen.

Das Hauptanliegen des vorliegenden Beitrags ist es, darunter die Konzepte von Schauspieler und Masse gesondert zu analysieren, die die Hauptakteure in der Kultur- bzw. Dekadenzkritik sind, um eins von den modernen Probleme klar zu beleuchten und festzustellen, mit welchen Problemen Nietzsche bis zum Ende zu kämpfen versucht hatte.

[Key Word] Nietzsche, Schauspieler, Masse

■ 투고일: 2020.02.16. 심사일: 2020.03.11. 게재확정일: 2020.03.12.